

클린스만 경질했지만... 뒷맛 짹짹한 정몽규 '맹탕' 기자회견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6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대표팀 사안관련 KFA 임원회의를 마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협회장 3선 임기 내년 1월 까지... 4선 도전 가능성 언급 사퇴 의사·연임 의지 질문에 애매한 답변으로 해석 분분

대한축구협회가 워르겐 클린스만(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을 경질하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지만 여전히 뒷맛이 짹짹하다. 협회는 지난 16일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정몽규 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회의를 갖고,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결정했다. 64년만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실패한 아쉬움을 배제해도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독 경질로 일단 아시안컵 후폭풍 1막은 끝났다. 그러나 어딘지 짹짹함이 많이 남는다. 책임의 주체 하나인 정 회장은 사실상 사

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대회 기간 중 있었던 선수단 내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덜고 가자'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경질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합적인 책임은 축구협회, 그리고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더 자세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인의 책임을 앞세운 것 같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시 살펴볼까하며 사퇴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사퇴 의사는 없느냐'는 질문에 "클린스만 감독 선임도 파울루 벤투 감독 선임 때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다"며 선임 과정에 대한 오

해를 언급하며 재차 거부했다. 협회장 3선 중인 정 회장의 세 번째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4선 도전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정 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답변했다. 연임 의지에 대해 묻자 "2018년도 총회 때 회장 임기를 3선까지 제한하도록 정관을 바꾸려고 한 적이 있다. 당시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승인을 안 했는데 그걸로 대답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정관으로 3선까지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인은 3선에서 마칠 것이라는 것인지, 4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전하겠다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하겠다", "하지 않겠다" 식의 답변을 피한 것인데, 윤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지 않고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대답이다.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중심으로 선수단 내부에서 불거진 물리적 충

돌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정 회장은 "모두가 예민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고, 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럴 때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상처를 후벼뿌려 악화시킬 수 있다. 언론도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도 도와주셔야 한다. 다들 젊은 사람인데, 잘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조항을 살펴봤지만 징계는 소집을 하지 않는 것 뿐"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정 회장은 "대표팀을 한 팀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다음 대표팀 감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후임 코칭스태프에 수습을 넘겼다. 우유부단한 평소 모습처럼 정 회장의 기자회견은 맹탕이었다. 뉴스



영암군민속씨름단, 씨름인 행사서 전국 최강 확인... 4개 부문 수상

영암군민속씨름단이 13일 경남 산청군 산청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한씨름협회(회장 황경수)의 '씨름인의 밤' 행사에서 민속 씨름 분야 최우수지도자상, 최우수선수상 등 4개 부문을 차지했다. 전국 씨름인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2023년 씨름을 되돌아보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씨름 발전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한 관계자를 표창·격려하는 자리. 이 행사에서 영암군민속씨름단 김기태 감독이 최우수지도자상을, 김민재 장사가 최우수선수상을, 차민수 장사가 한라급우수선수상을, 최정만 장사가 금강급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강임을 증명하는 수상이었다. 영암=조대호 기자

반성 없는 클린스만 "포기하지 않는 정신 불어넣었다"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과 인터뷰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탈락한 뒤 경질된 워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지난 17일(한국시간)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카타르 아시안컵과 관련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한국 대표팀에 불어넣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 호주와 8강전은 드라마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클린스만 전 감독은 "스포츠 측면에서 본다면 아시안컵은 성공적인 결과였다"는 발언도 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경질됐지만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열린 2024년도 제1차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중 준결승 요르단전에서 전술적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손흥민-이강인 총들과 관련해 "선수단 불화가 있었고



그 부분이 경기력에 영향을 있었다"며 선수 탓을 했다. 뉴스

클린스만 수석코치도 선수 탓... "손흥민·이강인 싸움으로 탈락"

"몇 달에 걸쳐 공들여 쌓은 것, 몇 분 만에 무너져"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탈락한 뒤 워르겐 클린스만과 함께 경질된 안드레아스 헤어초크(오스트리아) 전 수석코치가 손흥민-이강인 총들 탓에 탈락했다고 밝혔다. 헤어초크 전 코치는 지난 17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매체 크로넨자이퉁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요한 경기 전날 저녁 팀 내부에서 세대 갈등이 벌어지고 톱스타인 손흥민과 이강인이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매우 감정적인 싸움으로 팀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며 "몇 달에 걸쳐 공들여 쌓은 것이 거의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무너

졌다"고 말했다. 헤어초크 전 코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정치권의 압박 탓에 자신들을 경질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한국) 정치권의 압박이 컸다"며 "그는 항상 우리를 지지했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언론을 향한 불만도 드러냈다. 헤어초크 전 코치는 "지난 몇 달 동안(한국) 언론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캐러 한다면 결국은 그것을 찾아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헤어초크 전 코치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A매치 103경기 26득점을 기록했다. 바리에른 뮌헨과 베르더 브레멘 등에서 뛰었다. 지도자로 변신한 뒤에는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감독, 이스라엘 국가대표 감독, 미국 국가대표 코치, 한국 국가대표 수석코치 등을 역임했다. 뉴스

전남, 게임체인저 조재훈(2003년생) 임대영입

전남드래곤즈(이하 전남)가 게임체인저 미드필더 조재훈(2003년생)을 임대영입했다. 178cm 65kg의 조재훈은 넓은 시야와 유연한 드리블 능력을 겸한 미드필더로 한국축구의 유망주로 손꼽힌다. 2021년 7월 포항스틸러스에 입단한 조재훈은 당시 포항의 역대 최연소 입단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현재까지 프로통산 21경기를 출전하였다. 타고난 개인기량과 축구지능으로 원포워드는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도 소화할 수 있는 조재훈은 전남의 다양한 공격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에 합류한 조재훈은 "그라운드에서 경쟁력있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다"면서 "전남드래곤즈가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번 시즌 반드시 공



격포인트를 기록하여 팀 수리에 보탬이 되고 나도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손흥민, 마음고생이 경기력으로?... 무더기 최저 평점 받아

황희찬 있는 울버햄튼과 대결서 유효슈팅 0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과 그라운드 밖 이슈로 인한 휴유증일까, 손흥민(토트넘)이 근래 가장 부진한 모습으로 팀 패배를 지켜봤다. 토트넘은 18일 0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5라

운에서 울버햄튼에 1-2로 패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2무로 상승세를 그리던 토트넘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지난 11일 브라이튼과 경기에서 교체 출전해 역전 결승골을 도우며 아시안컵 이후 소속 팀 복귀를 알렸던 손흥민이다. 이날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울버햄튼의 견제

에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측면에 고립되는 모습이 잦았다. 경기 초반 침투패스와 날카로운 크로스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유효슈팅도 없었다. 손흥민은 이날도 아시안컵 당시 선수단 내부 충돌 때, 입은 부상으로 인해 오른손 검지와 중지 뼈대를 감은 채 경기에 나섰다. 그는 울버햄튼과 경기를 앞두고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에서 "아시안컵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토트넘 팬들이 크게 환영해 주고 반겨줬을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다"며 아시안컵 이후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은 64년만의 아시안컵 정상 탈환을 노렸지만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 0-2로 일격을 당하며 대회를 마감했다. 유럽축구통계전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6.0점을 주며 가장 낮게 평가했다. 소파스코어의 6.7점, 풋덱의 6.0점 모두 팀 내 최저였다. 현지 매체 풋볼런던도 최하인 5점을 주며 "토트넘의 공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후반 43분까지 8분을 소화한 황희찬의 움직임도 경쾌하진 못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황희찬에게 6.7점을 부여했다. 소파스코어와 풋덱은 각각 6.6점, 7.1점을 줬다.

쇼트트랙 서이라, 올시즌 월드컵 500m 한국 첫 금

서이라(화성시청)가 올시즌 쇼트트랙 월드컵 500m 종목에서 첫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가 됐다. 서이라는 18일(한국시간)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열린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 남자 5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서 41초451로 1위에 올라 금메달

을 딴다. 올시즌 ISU 월드컵 대회 500m 종목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남녀부를 통틀어 서이라가 처음이다. 서이라는 5년 만에 국가대표로 복귀한 뒤 금메달을 다시 목에 거는 감격을 누렸다. 뉴스